

요리사·헤어디자이너 30명 전시장 입구 악수 맞이 임을 위한 행진곡 맞춰 관람객과 플래시몹 제조

오감자극 퍼포먼스로 꾸며지는 2014광주비엔날레



9월3일 오후 3시 경북 경산과 진주에 방치돼 있는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과 '진주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유골이 담긴 컨테이너 2개가 광주비엔날레 광장으로 호송된다. 광주를 함께 찾는 피해자 유가족은 이날 오월어머니회에서 맞이한다.

이날 컨테이너, 유가족을 태운 버스 등 전체 행렬이 항공으로 촬영되고, 유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장면이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비디오 채널로 생중계된다. 이 작품은 개인과 공동체 문제, 재개발 이슈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임민욱 작가의 퍼포먼스 '내비게이션 아이디'로 부조리한 국가 권력에 희생당한 인간성 회복과 치유를 메시지를 담아낸다. 2014광주비엔날레의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이기도 하다.

2014광주비엔날레 '터전을 불태우라'(Burning Down the House)를 주제로 열리는 2014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개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사 기간 전시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시가 모건 2014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은 앞서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실험적인 연극과 춤이 아우러지는 퍼포먼스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승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내달 3일 진주 민간인 학살 다룬 '내비게이션 아이디'로 오프닝

시민 400여명 참여 최대 규모 실험적 연극·춤 퍼포먼스 풍성

퍼포먼스에는 4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들이 꾸미는 퍼포먼스는 전시장 곳곳에서 하나의 작품으로 관람객들의 오감을 자극하게 된다.

제니퍼 알로라와 기예도 칼자디아가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전시실에서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기질과 늑대'는 이색적인 퍼포먼스다. 요리사, 헤어 디자이너 등 손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30명의 시민들이 전시장 입구에 양쪽으로 늘어서 뒤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형태다. 관람객들은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전시장을 통과하게 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지역 풀뿌리 문화단체인 '하모니 테라피', '난타모' 등도 참여한다.

도발적인 육체 예술가로 불리는 정금형 작가는 9월3~5일 전위적인 퍼포먼스 '심폐소생술 연습'을 선보인다. 누드 퍼포먼스로 인간 몸과 인형의 소통을 테마로 한 실험적인 공연이다.

세실리아 벵골레아와 프랑수아 세뇨는 9월3~5일, 전시기간 주 1회 전시관 4전시실에서 소멸과 재탄생을 다룬 무용 퍼포먼스 '실피드'를 진행한다.

'오월의 노래'도 퍼포먼스로 탄생한다. 홍영인 작가가 전시기간 금~일요일 오후 3시에 선보이는 '5100 대 오각형'은 작가가 호남신학대 실용음악과 출신들과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이미지에서 발견한 움직임을 재해석한 오월 관련 노래들을 리메이크한 퍼포먼스 작품이다.

피에르 위그는 3전시실에 설치된 알스 피셔 작가의 작품 '가상의 집' 입구에서 관객을 안내해 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25~35세 젊은 남성이 '안녕하세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라며 관객을 안내해주는 '내입 어나우서' 퍼포먼스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서영기 작가와 이재호 작가 등이 참여한다.

김화용, 이정민, 진시우 3명의 젊은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사회적인 작가 그룹 육인 콜렉티브

2014광주비엔날레에는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퍼포먼스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사진은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함께 진행된 워크숍.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연상시키는 음악에 맞춰 관람객과 제조를 시도한다. '작전명-님과 노래를 위하여'는 전시장 안팎에 설치된 방송 시스템을 전유하며 플래시몹 형태로 즉흥적으로 시민들과 퍼포먼스를 즐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허만 청은 9월3~5일, 11월7~9일 모두 6차례에 걸쳐 번역되지 않은 국내 소설을 한 명이 읽고, 또 다른 한 명이 통역하는 형태의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에이 아라카와와 임인자 작가는 9월3~5일 극회 광대, 놀이패 신명, 극단 토박이 등의 등장인물을 연구해 선보이는 '비영웅극장'을 전시장에서 선보인다.

로만 온다의 '시계장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오랜 수감생활을 상기시키는 퍼포먼스다. 10명의 퍼포먼스 참가자들이 '몇 시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등의 질문을 하면 관람객이 전시관 벽면에 답을 적는 형식이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미술평론가 임근준씨 초대 상록인문학 다섯번째 강좌 광주시립미술관 27일 상록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미술디자인평론가 임근준(사진)씨를 초대해 2014 상록인문학강좌 다섯 번째 강좌를 진행한다.

임씨는 이날 '현대미술과 전유의 정치학'을 주제로 광주비엔날레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이론과 담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그는 1970년대 후반 대두된 현대미술의 양상을 바꾼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과 함께 자크 데리다, 자크 라캉, 미셸 푸코 등 현대미술을 이해하기 위한 후기 구조주의 학자들의 문헌이론을 살펴본다. 임씨는 1995~2000년 LGBT(성소수자)운동가로 활동했고, 이후 계간 공예와 문화 편집장, 시공아트 편집장, 월간 아트인컬처 편집장을 지냈다. 문의 062-613-7155.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27일 '유·스퀘어 음악회' 재즈 앙상블 최준밴드 초대 공연

유·스퀘어 문화관은 문화가 있는 날인 27일 오후 6시30분 유·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제3회 유·스퀘어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재즈 앙상블 '최준밴드'(최준·김선민·고지훈·전사무엘·장성훈)가 초대됐다.

최준밴드 리더 최준(사진)은 '사랑과 우정사이'로 잘 알려진 피오키오의 객원보컬 출신이다. 지난 2008년 버클리 음대를 졸업한 뒤부터 각종 콘서트, 방송, 영화, 뮤지컬 등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공연에서는 스티비 워더의 'Lately', 프랭크 시나트라 의 'New York, New York' 등 팝송과 '사랑과 우정사이'를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 중간 퀴즈를 통해 동산아트홀에서 진행중인 연극 '제정한 로맨스' 초대권을 선물할 예정이다. 또 이날은 '제정한 로맨스'와 사진전 '점핑 위드 러브'를 각각 4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360-8435.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퇴근길 인문학으로의 초대

해와문화예술공간 '해와 자유대학' 가을 학기 내달 개강

참가신청 29일까지 접수

'퇴근길 자유대학'이란 별칭으로 불리며 인문학 강좌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해와 자유대학' 가을 학기 프로그램이 9월 개강한다. 강좌별 참가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다.

해와문화예술공간이 올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해와 자유대학'은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지식강좌와 다양한 문화강좌로 구성돼 있다. 지식강좌는 인문학, 역사, 문학으로 마련

된다. 인문통섭 강좌는 '인문학으로 숨을 쉬다'를 타이틀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진행한다. 이번 학기에는 독일 비평가인 2세대를 대표하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을 텍스트로 현대라는 시대와 현대성이라는 철학적 개념의 탄생과 쟁이 보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학기에는 '한민족 상고사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역사통섭 강좌가 새로 개강한다. 그동안 우리 민족의 상고사의 흔적을 찾아



박하선

박구용

사진으로 담은 작업을 해온 박하선 사진작가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강좌에서는 작품을 토대로 백제시대까지의 한민족 역사를 짚어본다.

또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한순미 조선대 교수가 진행하는 문학 콘서트 '책 읽는 밤'이 열린다. 9월의 책은 이청준의



'그곳을 다시 잊어았다'가 선정됐다.

이밖에도 '정신분석과 심리학', '커피·바리스타 과정', '시네 필름' 등 강좌도 함께 열린다. 자세한 강좌 일정 및 시간, 수강료는 해와문화예술공간 홈페이지(www.haewaspace.com)를 참조하면된다. 문의 062-233-9011.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해남 대흥사 추석템플스테이

추석 연휴를 한적한 산사에서 보내는 건 어떨까. 해남 대흥사(주지 범각)는 9월7~9일 2박3일 일정으로 '디디고 추석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대흥사 디디고 템플스테이는 두륜산 와불을 디디고 올라 새로운 시작과 다시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새 희망을 다지는 취지의 템플스테이다. 번잡한 것을 피해 추석 연휴를 조용히 보내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송편빚기', '오강명상', '108배하며 염주만들기', '두륜산 디디고 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2박3일 기준 성인 7만원, 중·고생 6만원, 초등학생 5만원이다. 문의 061-535-5775. /김경인기자kki@

30년 전통의 -

민우액자표구화랑

영화 캔버스 액자, 표구, 각종액자 제작, 그림판매

작가의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허 경 식

목포시 산정동 112-1 (백년로 4거리 장약국 건너편)

T (061)274-1481

H 010-2632-1481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오리정문점

작한 산수정

한분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약오리

오리구이

오리주물럭

목포시 미향로 21(하당 우미5차 부근) T (061)281-5231